제7장 국어의 음운 규칙

1. 기저형과 표면형
2. 변이음 규칙과 음소 변동 규칙
3. 국어의 변이음 규칙
4. 국어의 음소 변동 규칙

1. 기저형과 표면형

①생성음운론(Generative Phonology)의 기본 모형

표면형(surface form) : [꽂], [꼳], [꼭], [꼽], [꼿], [꼰], [꼼]*

↑ ← **음운 규칙**(phonological rule)

기저형(underlying form): /꽂/

*음성 환경에 따른 /꽂/의 발음 유형은 (1)의 예시를 참조.

②화자들의 머리 속에 언어 지식의 일부로서 저장되어 있는 낱말이나 문장의 음성형을 **기저형**이라 하고, 기저형에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되는 음성형을 **표면형**이라 한다. 따라서 음운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낱말이나 문장의 기저형을 어떻게 표기하는지(또는 어느 음성형을 기저형으로 정할 것인지), 나아가 기저형에서 표면형으로 도출해내는 음운 규칙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2. 변이음 규칙과 음소 변동 규칙

※음운 규칙=변이음 규칙+음소 변동 규칙

- **변이음 규칙**: 하나의 음소가 여러 변이음(allophone)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규칙화한 것

(예) 세상[seːsaŋ] → 신[ɕin]~손[sʷonʷ]~쉼터[ʃymːtʰʌ]

*국어의 /ㅅ/은 ①/ㅣ, j/ 앞에서 변이음 [ɕ]로 실현되며, ②/ㅜ, ㅗ, ㅚ, w/ 앞에서 변이음 [sʷ]로 실현되며, ③/ㅟ, ɥ/ 앞에서 변이음 [ʃ]로 실현된다.

- **음소 변동 규칙**: 하나의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거나(replacement, substitution), 탈락되거나(deletion, elision), 첨가되는(addition, insertion) 양상을 규칙화한 것

(예) 신문[신문~심문]<대치>

놓이다[노이다]<탈락>

신여성[신녀성]<첨가>, 색연필[생년필]<첨가+대치>

3. 국어의 변이음 규칙

3.1. 반모음의 무성화: 국어의 반모음 /j, w/는 유기 파열음 /ㅍ, ㅌ, ㅋ/과 마찰음 /ㅅ, ㅆ, ㅎ/ 뒤에서 무성화된 다음 유기 파열음의 기나 마찰음과 융합하여 무성 마찰음 /ç, ʍ, ɕ, s͈ʷ/로 발음된다. p.135 예시 (2) 참조.

3.2. 모음의 무성화:

①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성화는 길이나 크기 등을 나타내는 어휘(길다, 멀다, 크다, 작다),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는 어휘(좋다, 예쁘다, 싫다, 죽겠다), 색채를 나타내는 어휘(노랗다, 파랗다, 빨갛다) 등 화자의 감정이 쉽게 이입될 수 있는 어휘들에서 주로 일어나며, 대체로 첫 음절이 모음이 매우 길게 발음할 뿐만 아니라 무성화시켜 발음한다.

②짧은 고모음 /ㅣ, ㅟ, ㅜ, ㅡ/는 유기음 /ㅍ, ㅌ, ㅋ, ㅊ/이나 마찰음 /ㅅ, ㅆ, ㅎ/ 뒤에서 거의 대부분, 혹은 완전히 무성화 된다. p.136 예시 (3) 참조.

그러나 짧은 고모음이 어말에 나타날 때에는 유기음이나 마찰음 뒤에서 일부분만 무성화되며, 고모음 이외의 짧은 모음들도 유기음 /ㅍ, ㅌ, ㅋ, ㅊ/ 뒤에서는 부분적으로 무성화된다. p.136 예시 (4) 참조.

3.3. **목젖소리 되기**: 연구개 파열음 /ㄱ, ㅋ, ㄲ/과 연구개 비음 /ㅇ/은 후설 개모음 /ㅏ, ㅓ/ 뒤에서 종종 목젖소리 /q, ɴ/으로 발음된다. p.136 예시 (5) 참조.

3.4. **구개음화**:

①국어의 자음은 모음 /ㅣ/와 반모음 /j/, 그리고 경구개 파찰음 /ㅈ, ㅊ, ㅉ/ 앞에서 경구개음화되며, /ㅟ/나 /ɥ/ 앞에서는 경구개음화될 뿐만 아니라 원순음화된다. pp.136~137 예시 (6) 참조.

②국어의 자음은 모음 /ㅡ/나 연구개 자음 /ㄱ, ㅋ, ㄲ, ㅇ/ 앞에서 연구개음화되며, 모음 /ㅜ/나 반모음 /w/ 앞에서는 연구개음화될 뿐만 아니라 원순화된다. pp.137~138 예시 (7) 참조.

3.5. 유성음화:

①이완음 /ㅂ, ㄷ, ㄱ, ㅈ/은 같은 말토막(breath group) 안의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된다. pp.138~139 예시 (8), (9), (10) 참조.

②마찰음 /ㅎ/도 같은 말토막 안의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된다. 그러나 용언의 어간말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완전히 탈락한다.
pp.139 예시 (11), (12) 참조.

3.6. 마찰음화: 이완음 /ㅂ, ㄷ, ㄱ, ㅈ/은 같은 말토막 안의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될 뿐만 아니라 종종 마찰음으로 약화되기도 한다. p.140 예시 (13) 참조.

3.7. 원순음화: 국어의 원순모음은 같은 음절 안의 모든 자음을 원순음화시키고, 양순 반모음은 같은 음절 안의 앞선 자음만을 원순음화시킨다.
p.140 예시 (14) 참조.

3.8. 비음화: 비음을 조음할 때는 연구개의 뒷 부분을 하강시켜 비강 통로를 개방하게 되는데, 연구개의 운동은 민첩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선 모음이나 유음의 끝 부분이 비음화되며, 뒤이어 나오는 모음이나 반모음의 앞 부분도 비음화된다. p.141 예시 (15) 참조.

3.9. 미파화 및 무음 개방: 종성 /ㅂ, ㄷ, ㄱ//ㅁ, ㄴ, ㅇ, ㄹ/은 조음시 어말이나 같은 조음 위치의 자음 앞에서 미파화하며, 다른 조음 위치의 자음 앞에서는 무음 개방한다. pp.141∼142 예시 (16) 참조.

3.10. 탄설음화: 유음 /ㄹ/은 모음과 모음 사이, 모음과 반모음 사이, 또는 모음과 /ㅎ/ 사이에서 탄설음 [ɾ]로 실현된다. p.142 예시 (17), (18), (19) 참조.

4. 국어의 음소 변동 규칙

4.1. 종성 규칙: 종성의 발음 양상을 규칙화한 것. 음소 연결 제약과 밀접한 관련성.

4.1.1 중화 규칙: 폐쇄음이 종성 위치에서 같은 조음 위치의 평폐쇄음으로 변동.
평폐쇄음화, 대표음화로 불리기도 함. 표준발음법 제8, 9, 12항 참조.

(20) ㄱ. /ㅂ, ㅍ/ → [ㅂ]
밥통[밥통], 앞[압], 앞뒤[압뛰]
ㄴ. /ㄷ, ㅌ, ㅅ, ㅆ, ㅈ, ㅊ/ → [ㄷ]
받고[받꼬], 밭[받], 났고[낟꼬], 낫[낟], 낮[낟], 낯[낟]
ㄷ. /ㄱ, ㅋ, ㄲ/ → [ㄱ]
국[국], 부엌[부억], 낚시[낙씨]
ㄹ. /ㅎ/→(/ㄷ/) → [ㄴ]
낳는다[난는다](←[낟는다])

4.1.2. 겹받침 단순화: 겹받침들이 어말이나 다른 자음 앞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
자음군 단순화로 불리기도 함. 표준발음법 제10, 11, 12항 참조.

1) ㄳ, ㅄ, ㄵ, ㄽ ㄾ

(21) 넋[넉], 값[갑], 앉다(→[앉따])[안따], 외곬[외골], 핥다(→[핥따])[할따]

2) ㄶ, ㅀ

(22) 많고[만:코], 닳지[달치], 많다[만:타]
많소[만:쏘], 싫소[실쏘], 않네[안네], 뚫네[뚤레](←[뚤네])

3) ㄻ

(23) 삶[삼:], 굶다[굼:따], 젊다[점:따]

4) ㄼ, ㄿ, ㄺ

(24) 밟다[발:따/밥:따/밟:따], 읊다[을따/읍따/읊따], 기슭[기슬/기슥/기슭]

(25) 여덟[여덜], 짧다[짤따], 넓다[널따] cf) 밟다[밥:따], 넓죽하다[넙쭈카다]

(26) 읊다[읍따], 기슭[기슥], 맑다[막따] cf) 맑게[말께], 묽고[물꼬]

4.1.3. 격음화: 평음 /ㅂ, ㄷ, ㄱ, ㅈ/은 /ㅎ/의 앞이나 뒤에서 /ㅍ, ㅌ, ㅋ, ㅊ/로 실현

표준발음법 제12항 참조.

1) /ㅎ/ + /ㄷ, ㄱ, ㅈ/ → [ㅌ, ㅋ, ㅊ]

2) /ㅂ, ㄷ, ㄱ, ㅈ/ + /ㅎ/ → [ㅍ, ㅌ, ㅋ, ㅊ]

(27) ㄱ. 놓고[노코], 놓다[노타], 놓지[노치]

ㄴ. 각하[가카], 맏형[마텽], 법학[버팍], 꽂히다[꼬치다]

ㄴ′. 앉히다[안치다], 많다[만:타], 밝히다[발키다], 넓히다[널피다]

싫다[실타] cf) 싫증(→[싫쯩])[실쯩]

ㄷ. 꽃 한 송이[꼬탄송이/꼳 한송이], 옷 한 벌[오탄벌/옫 한 벌]

ㄹ. 법학[버박], 핵확산[해곽싼], 약하다[야가다] ※방언 현상

4.1.4. 연음 규칙: 형태소 끝자음 /ㅍ, ㅌ, ㅋ, ㅈ, ㅊ/ 및 겹받침이 화자 및 방언에 따라 서로 다른 자음으로 실현되는 현상. 표준발음법 제13, 14, 15, 16항 참조.

1) 형태소 끝자음 /ㅍ, ㅌ, ㅋ, ㅈ, ㅊ/

(30) 무릎을[무르플/무르블], 밭에서[바테서/바체서/바세서], 솥을[소틀/소츨/소슬], 부엌에서[부어케서/부어게서], 젖이[저지/저시], 꽃이[꼬치/꼬시]

2) 겹받침

(31) 값이[갑씨/가비], 흙이[흘기/흐기], 통닭을[통달글/통다글], 여덟이[여덜비/여더리]

3) 형태소 끝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립형태소와 결합할 때

(33) ㄱ. 겉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값있는[가빈는]

ㄴ. 옷 안에[오다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밥], 꽃 위에[꼬뒤에] 등

cf) 맛있다[마딛따/마싣따/만닏따], 멋있다[머딛따/머싣따], 값어치[가버치]

4.2. 자음 동화: 자음과 자음이 이어나올 때 자음끼리 서로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현상.

유음화, 장애음의 비음화, 유음의 비음화, 변자음화

※동화(Assimilation)의 종류

①방향: 순행(a+b→a+α), 역행(a+b→β+b)

②정도: 완전(a+b→a+a), 부분(a+b→a+a′)

③거리: 인접(a+b→a+α), 원격(a+c+b→a+c+α)

ⅰ)α=a 또는 a′, β=b 또는 b′

ⅱ) a+c+b→a+c+α = b→α／a+c_____

(a=동화주, α=출력, b=피동화음, c=개재음, ____=위치)

4.2.1. 유음화: /ㄴ/이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 표준발음법 제20항 참조.

1) 단어 내부

(34) ㄱ.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괄령]

ㄴ. 칼날[칼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끼], 팔년[팔련], 닳는[달른], 핥는[할른]

2) 말토막 내부

(35) ㄱ. 겨울 나그네[겨울라그네], 바람 잦을 날[바람 자즐랄]

ㄴ. 너는 **산을, 나는** 바다를 좋아한다. [… 사늘 나는 …]

3) /ㄴㄴ/ → [ㄹㄹ] ※기성세대 서울 토박이

(36) 관념[괄럼], 천년 만년[철련 말련], 본능[볼릉], 만년필[말렴필]

(37) 곤란(<困難)[골란], 논란(<論難)[놀란], 한라산(<漢拏山)[할라산]

4.2.2. 장애음의 비음화: /ㅂ, ㄷ, ㄱ/이 비음 앞에서 /ㅁ, ㄴ, ㅇ/으로 바뀌는 현상.
표준발음법 제18항 참조.

1) 단어 내부

(38) ㄱ. 국물[궁물], 밥물[밤물], 먹는[멍는], 잡는[잠는]
ㄴ. 앞마당[암마당], 옷맵시[온맵씨], 흙내[흥내], 놓는다[논는다] 등

2) 말토막 내부

(39) ㄱ. 한국 남자[한:궁 남자], 밥 먹어라[밤 머거라], 옷 맞추다[온 맏추다]
ㄴ. 처음에는 찬 **음식, 나중에는** 더운 음식을 먹었다. [… 음식 나중…]

3) 순행 동화는 허용하지 않음.

(40) 감동[감:동/*감:농], 산보[산뽀/*산모], 강도[강도/*강노]

4.2.3. 유음의 비음화: /ㄹ/이 /ㄴ/과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현상.
표준발음법 제19, 20항 참조.

1) 단어 내부

(41) ㄱ. 담력[담:녁], 침략[침냑], 대통령[대:통녕]

ㄴ.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리], 협력[협녁→혐녁], 십리[십니→심니]

2) 자립형태소+의존형태소로 된 합성어

(42)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결단력[결딴녁]

(43) 음운론[으문논/으물론], 신문로[신문노/신물로], 공권력[공꿘녁/공꿜력/공궐력], 동원령[동:원녕/동:월령], 이원론[이:원논/이:월론], 생산량[생산냥/생살량] cf) 선릉[설릉/선능]

4.2.4. 변자음화: 치조음, 양순음이 수의적으로 순음 또는 연구개음으로 바뀌는 현상. 표준발음법 제21항 참조.

1) 단어 내부

(44) ㄱ. 치조음 → 양순음

엿보다[엽뽀다], 신발[심발], 신문[심문]

ㄴ. 치조음 → 연구개음

벗기다[벅끼다], 받고[박꼬], 손가락[송까락]

ㄷ. 양순음 → 연구개음

밥그릇[박끄륻], 감기[강:기], 임금님[잉금님]

2) 말토막 내부

(45) 문 고치기[문 고치기/뭉고치기], 예쁜 고양이[예쁜 고양이/예뻥고양이]

3) 연구개음이 치조음이나 양순음에 동화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46) 각서[각써/*갇써], 복도[복또/*볻또], 복부[복뿌/*봅뿌] 등

4.3. **구개음화**: 형태소의 끝자음 /ㄷ, ㅌ/이 /ㅣ/로 시작하는 의존 형태소(조사·어미·접미사) 앞에서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표준발음법 제17항 참조.

1) 적용 범위

(47) ㄱ. 밭-이[바치], 끝-이[끄치], 솥-이[소치]

ㄴ. 밭-이다[바치다], 끝-이다[끄치다]

ㄷ. 굳-이[구지], 맏-이[마지], 해돋-이[해도지], 붙-이다[부치다]
닫-히다[다치다](←[다티다]), 묻-히다[무치다](←[무티다])

2) 단어 내부 및 단어 결합시의 제약

(48) ㄱ. 마디[마디](<마ᄃᆡ), 견디다[견디다](<견ᄃᆡ다) cf) 생성음운론적 설명

ㄴ. 이 밭 임자[이 바딤자], 밭 있어요[바디써요]

ㄷ. 밭+이랑[반니랑] cf) 밭-이랑[바치랑](비표준), 홑+이불[혼니불]

3) 역사적/방언적 구개음화

(50) ㄱ. 됴타>죠타>좋다[조타] //길경이>질경이 //힘힘ᄒᆞᆫ>심심한

ㄴ. 길[질], 기름[지름], 학교[학쪼] //형[성], 휴지[수지]

4.4. 움라우트: 형태소 내부 및 결합시 후설모음 /ㅏ ㅓ ㅡ ㅗ ㅜ/가 모음 /ㅣ/에 동화되어 전설모음 /ㅐ ㅔ ㅣ ㅚ ㅟ/로 바뀌는 현상. 표준어 사정 원칙 제9항 참조.

1) 적용 범위

(52) ㄱ. 지팡이→지팽이, 아비→애비, 아기→애기, 맡기다→[매끼다]

ㄴ. 어미→에미, 구더기→구데기, 웅덩이→웅뎅이, 벗기다→[베끼다]

ㄷ. 속이다→쇡이다 //죽이다→쥑이다 //드리다→디리다

2) 각종 제약

①음운론적 제약: 개재자음은 양순·연구개음(변자음)

(53) 가시→*개시, 가지→*개지, 마치→*매치, 허리→*헤리, 빨리→*빨리

cf) 드리다→디리다(용언), 도련님→되(대)련님(방언)

②형태론적 제약: 일부 명사 내부 및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미사 결합시

(54) ㄱ. 냄비, 서울내기, 시골내기, 풋내기, 신출내기, 멋쟁이, 소금쟁이 등

ㄴ. 사람-이→*사램이 //사람-이다→*사램이다 //가-기→*개기 등

※단, 방언에서는 형태론적 제약이 훨씬 약화된다.

(55) ㄱ. 밥이→뱁이, 사람이→사램이, 떡이→떽이, 몸이→뫼이

ㄴ. 가기→개기, 잡기→잽기, 듣기→딛기, 찾기→[채끼] 등

※경남 방언에서의 음성적 실현형은 (56)~(58) 참조.

③어휘적 제약: 한자어

ㄱ. 소비(消費)→*쇠비, 가미(加味)→*개미, 사기(士氣)→*새기 등

cf) 학교(學校)→[핵꾜], 복남이(福男)→[봉내미], 강경(江景)이→[갱갱이]

※일상어나 인명・지명 등 한자어의 어원 의식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는 면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방언으로 갈수록 뚜렷한 경향을 보인다.

④의미론적 제약

ㄱ. 그 아이는 뵈기싫다[醜].

ㄴ. 나 보기(→*뵈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

4.5. 경음화: 평음 /ㅂ ㄷ ㄱ ㅅ ㅈ/이 경음 /ㅃ ㄸ ㄲ ㅆ ㅉ/으로 바뀌는 현상.
표준발음법 23~28항 참조.

4.5.1. 고유어의 경음화

(1) 장애음 뒤에서의 경음화

(59) 잇다・있다・잊다[읻따], 깎다[깍따], 국밥[국빱], 옷고름[옫꼬름] 등

(61) 넋받이[넉빠지], 값지다[갑찌다], 넓다[널따], 밟다[밥:따], 읊조리다[읍쪼리다], 핥다[할따], 앉고[안꼬], 많소[만:쏘] 등

cf) (60) 초가집 **고**치기, 두 집 **사**이에, 집 **두** 채, 그 집 **비**싸요, 그 집 무척 **비**싸요

(2) 어간말 /ㄴ, ㅁ/ 뒤에서의 경음화

(62) ㄱ. 껴안다[껴안(:)따], 심다[심:따]

ㄴ. 껴안기[껴안(:)끼], 심기[심:끼]

(64) 닮고[담:꼬], 닮기[담:끼]

cf) (63) 안기다[안기다], 감기다[감기다], 굶기다[굼기다], 옮기다[옴기다]

(65) 먹은 밥 //산[山]보다 //신발, 신고하다<표준> //신다[履][신다]<경남 일부>

(3) 관형형 어미 '-(으)ㄹ' 뒤에서의 경음화

(67) ㄱ.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ㄴ. 먹을 밥[빱] 좀 주세요. 만날 사람[싸람] 있어요.

cf) ㄷ.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

(70) 줄 돈과 음식[줄 돈과음식/ 줄 똔과 음식]

살 집과 자동차[살 집꽈자동차/ 살(:)찝꽈 자동차]

(71) 할걸[할껄],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쎄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니라[할찌니라], 할지라도[할찌라도], 할지언정[할찌언정], 할진대[할찐대] 등

cf) 할까? 할꼬? 합니까? 하리까? 할쏘냐? 맞춤법 53항 참조.

(4)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72) 냇가[낻까/내까], 콧등[콛뜽/코뜽] //문고리[문꼬리],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쌔], 그믐달[그믐딸], 잠자리[잠짜리](cf) 잠자리[蜻蛉])

4.5.2. 한자어의 경음화

(1) 장애음 뒤에서의 경음화

(73) 학교[학꾜], 학생[학쌩], 십분[십뿐], 극장[극짱], 국도[국또] 등

(74) ㄱ. 문학가[문학까], 유격전[유:격쩐], 철학자[철학짜]

ㄴ. 연극배우[연:극배우/빼우], 박사과정[박싸과정/꽈정]

(75) 방학 **숙**제, 영국 **국**기, 그 책 **구**입하세요.

(2) /ㄹ/ 뒤에서의 경음화

(76) 갈등[갈뜽], 절도[절또], 말살[말쌀], 불소[불쏘], 갈증[갈쯩], 발전[발쩐]

cf) (77) 특별**시**, 과실**즙**, 발달**사**, 고별**식**, 수술**실**, 쟁탈**전**, 골**조**직, 몰**지**각, 별**도**리, 별**세**계, 열**전**자, 열**전**도

(78) 가설**등**기, 개발**주**의, 개발**독**재, 공설**시**장, 관절**신**경통 cf) 부활주일[부:활쭈일]

(79) 허허실**실**, 절**절**하다

(80) 결과, 불복, 설계, 열기, 절기, 출고, 팔경, 활보, 물건 cf) 물가[물까]

(3) 불규칙한 경음화

(81) 價: 대가, 단가, 분양가, 영양가
權: 대권, 교권, 기본권, 공소권
券: 입장권, 승차권, 여권, 채권
圈: 공산권, 대기권, 성층권

cf) (82) 間: 대문간, 대장간 //시간, 공간
件: 사건, 안건, 조건 //물건
格: 본격, 성격, 엄격 //가격, 자격
科: 국문과, 내과 //교과서
課: 총무과, 인사과 //일과, 부과
果: 성과 //효과, 결과, 인과
句: 경구, 대구, 문구 //절구
氣: 광기, 윤기, 驚氣 //景氣, 감기, 용기, 오기
法: 헌법, 공법, 계산법 //방법, 불법 등

(83) 罪: 단죄, 중죄 //사기죄, 살인죄, 과실상해죄

(85) 的: 私的, 性的 //표적, 개인적, 일방적 //능률적[-쩍], 실질적[-찔쩍]

性: 이성, 인성, 개성 //감수성, 합리성 등

4.5.3. 젊은 세대와 방언에서의 경음화

(86) 효과[효:과/꽈], 눈사람[눈:사람/싸람], 김밥[김:밥/빱], 불법[불법/뻡], 체증[체증/쯩], 소주[소주/쏘주] 등

(87) 방법, 일방적, 과자, 쥐, 고양이, 곱셈, 고등어, 골목길, 십분 정도 등

4.6. ㄴ-첨가 앞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형태소가 /ㅣ, j/로 시작하는 합성어에서 /ㄴ/이 첨가되는 현상. 표준발음법 29항 참조.

4.6.1. 고유어에서의 ㄴ-첨가

(89) 솜이불[솜:니불], 홑이불[혼니불], 삯일[상닐], 맨입[맨닙], 늦여름[는녀름], 콩엿[콩녇], 업신여기다[업:씬녀기다]

(91) 들일[들릴], 솔잎[솔립], 불여우[불려우], 물엿[물렫], 좁쌀영감[좁쌀령감]

(90) ㄱ. 힘입다[히밉따], 힘있다[히믿따], 맛있다[마딛따/마싣따], 멋있다[머딛따/머싣따]
ㄴ. 땅임자[땅님자/땅임자], 센입천장[센:닙천장/세:닙천장], 옷 입다[온닙따/오딥따],
ㄷ. 이죽이죽[이주기죽/이중니죽], 야금야금[야그먀금/야금냐금] cf) 일렁일렁

(92) ㄱ. 한 일[한닐], 할 일[할릴], 서른 여섯[서른녀섣], 문을 열다[무늘렬다]
ㄴ. 나는 철수한테만 ##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철수한테만 ## 야구[냐구]를 가르쳐 주었다.

4.6.2. 한자어에서의 ㄴ-첨가

(97) ㄱ. 신여성[신녀성], 열역학[열려칵], 신혼여행[신혼녀행], 직업여성[지검녀성], 기본연습[기본년습], 완행열차[완:행녈차], 민간요법[민간뇨뻡]

ㄴ. 송별연[송:벼련], 고용인[고용인], 국경일[국꼉일], 6·25[유기오], 음이온[으미온], 검인정[거:민정], 총인구[총:인구], 첫인사[처딘사]

ㄷ. 필요[피료], 활용[화룡], 절약[저략] //검열[거:멸/검:녈], 금융[그늉/금늉]

(98) ㄱ. 일목요연[일모교연], 역이용[여기용], 상임이사[상임이사]

ㄴ. 부당이득[부당이득/부당니득], 문명이기[문명이기/문명니기]

ㄷ. 어학연구소[어:하견구소/어:항년구소], 대학야구[대:항냐구/대:하갸구]

(100) '驛, 炎, 鹽, 慾·浴, 用, 油, 肉'은 셋째 음절 이하에서 [녁, 념, 뇩, 뇽, 뉴, 뉵]으로 발음되고, '藥, 熱'은 둘째 음절 이하에서 [냑, 녈]로 발음된다.

4.6.3. 경상도 방언에서의 ㄴ-첨가

(103) 필요[필료], 활용[활룡] // 일요일[일료일], 월요일[월료일] // 김유신[김뉴신], 김 여사[김녀사] // 솔잎[소립], 물약[무략]

4.6. 사이시옷의 첨가: 구성 형태소들이 속격, 처격, 수혜격 관계에 있는 합성어에 사이시옷이 첨가되는 경향이 강하다.

(106) ㄱ. 속격 관계

손등[손뜽], 상다리[상따리], 살가죽[살까죽](앞 형태소 무정물)

고래등[고래등], 개다리[개:다리], 범가죽[범:가죽](앞 형태소 유정물)

ㄴ. 처격 관계

안집[안찝], 산사람[산싸람], 아침밥[아침빱], 봄비[봄삐]

ㄷ. 수혜격 관계(~을 위한)

고깃배[고긷빼/고기빼], 잠자리[잠짜리], 양칫물[양친물]

cf) 머리방, 빨래방, 노래방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4.12. 반모음화: (138)~(141) 참조.

4.14. 단모음화: 표준발음법 7항 참조.

4.15. 장모음화: 표준발음법 6항 참조.